

세계로 뻗는 '충장축제' 추억여행 떠나요

버스커즈 월드컵·700대 드론쇼...세계 음식·문화 페스티벌 오늘 5·18민주광장 개막식...17일까지 광주는 축제 속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광주대표 축제 '추억의 충장축제'가 13일 막을 올리고 닷새 동안 광주 도심에 축제의 장으로 물들었다.

12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 5·18 민주광장에서 '제19회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린다.

올해는 '나의 축제는 한편의 영화다'를 주제로 13일부터 5일간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등 동구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는 6개 부문에서 4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동구 합창단과 미8군 밴드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코미디언 전유성의 상황극, 가수 김다현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드론 700대가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에는 가수 김필과 데이브레이크, 경서, 노을, 백예슬 등이 무대에 올라 개막 축하 공연을 이어간다.

동구는 이번 축제는 모든 세대와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장 퍼레이드에는 해외 아티스트가 대거 초청됐다.

영화와 유명 미디어 요소를 접목한 각종 조형물을 지상과 건물외벽, 옥상 등에 설치하는 한편 미디어아트를 건물 외벽에 형상화해 입체적인 퍼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들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 우리은행 앞과 흥국회제빌딩과 SBI저축은행 사이에 마련된 총

378석의 관람석에서 퍼레이드를 관람할 수 있다.

총상금 약 2억 원에 달하는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버스커즈 월드컵에는 총 539팀이 참여해 현재 예선을 마쳤으며 120여 팀이 본선을 진행 중이다. 13일부터 16일까지는 ACC하늘마당에서 본선 2차와 3차가 치러지며 17일 오후 6시께 5·18민주광장(충장축제 주 무대)에서 결선 무대가 펼쳐진다.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주철환 교수와 가수 김장훈·임헌일 등이 전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사전에 모집된 100명이 청중심사단 역할을 맡는다.

또한 14일에는 버스커즈 월드컵 본선에서 탈락한 12개의 팀이 ▲남구 푸른길공원 광복천 광장 ▲북구 양산호수공원 ▲ACC하늘마당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버스킹 무대를 여는 등 광주 전역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시 동구 충장동 한복의거리 '추억의거리'로 변신해 ▲추억의 전시관 ▲나 어렸을 때 사진 전시 ▲추억의 DJ 다방 ▲추억의 교복 입기 등의 프로그램들도 예년과 같이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광주시 동구 대인동 동부경찰서 인근에서는 세계 음식·문화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독일, 멕시코, 자메이카, 인도,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외국인 셰프가 직접 음식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이와 연계해 공예나 네일아트 등을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한편, 충장로 일대에는 547명의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 현장 통제 및 방역을 할 방침이다. /민헌기 기자 hyunki@



내가 생각하는 '세계 평화'

광주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12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계평화'의 의미를 도화지에 그려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포화율 100% 넘어

한빛원자력발전소(한빛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포화율이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비례)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저장시설 포화율은 2020년 12월 기준 100.5%를 기록했다.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폐물은 경복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 인도돼야 하지만 방폐물의 핵종 평가와 드림 처리 등을 위해

임시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원전에는 드림 처리된 중저준위 폐기물 포화율은 79.1%지만 드림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포함하면 100.5%에 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울본부의 포화율은 105%에 달했고, 고리·새울본부의 포화율은 74.3%, 월성 62.6%를 보였다.

한빛본부와 같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이 저장용량을 초과하면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안전성 평가 매뉴얼상 원전 가동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스토킹 피해자 방문 상담

광주여성의전화 11월 24일까지

☞광주여성의전화는 오는 11월 24일까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10월에는 광주여자대학교에서, 11월에는 전남대학교에서 매주 목요일에 운영한다.

광주여성의전화는 오는 26일에는 광주시청에서 여성폭력 생존자 5명의 이야기를 듣는 북토크도 개최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야기를 들은 뒤 작가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민헌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수천만원 유흥비 말이 되나"

국감서 3년간 5000만원 접대비 질타...교수 폭행사건도 지적

전남대 국정감사에서는 기술지주회사의 유흥비 소액 접대비 지출과 교수 폭행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2일 전남대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전남대학교 소유 기술지주회사가 최근 3년 동안 5000만 원에 달하는 접대비를 유흥비로 사용했다"며 "이런 사실이 그동안 제대로 감사가 안돼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회사는 2016년 3047만원·2017년 2095만원·2018년 10457만원 등을 접대비로 지출했는데, 결제처 중 유흥비로 확인된 금액은 2016년 1084만원·2017년 1875만원·2018년 912만원 등이다"며 "유흥비로 확인된 건은 3년간 총 73건이고, 영수증이 없어 확인이 안 되는 건가

지 합하면 총금액은 약 50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결제 건은 자필로 금액을 쓴 쪽지만 첨부되어 있을 뿐, 세부 영수증명 자료가 첨부되지 않기도 했다.

서 의원은 "전남대 해당 기술지주회사는 3년간 약 15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됐고, 같은 기간 회사 매출이 2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에도 수천만 원을 유흥비로 썼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에서 최근 발생한 교수 폭행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남자 교수가 여자 교수를 강의실에서 두차례 폭행한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지난달 8일 A교수가 B교수를 폭행한데 이어 같은달 20일에도 똑같은 사건이 강의실 내에서 발생했다"며 학교측

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또 "교무처에서는 공간분리를 요청했지만 해당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 2차 폭행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며 "학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폭행사건 조사위를 늦게 꾸리는 등 대학측이 미온적·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무소속 민행배 의원은 "교수 간 폭행사건은 학교측이 초기대응을 잘못된 것 같다"며 "학교에서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택 총장은 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 사안을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술지주회사 유흥비 집행건에 대해서도 "재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 북구 '전국 드론축구대회' 15일 개막

전국 40여개 팀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드론축구대회'가 광주시 북구에서 열린다.

12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광주시 북구 오룡동의 '북구드론공원'에서 제

2회 북구정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승급별로 3개 리그로 운영되며, 전국에 있는 40개의 드론축구팀이 참가한다.

리그별 1위부터 4위를 차지한 팀에게 북구정장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첫날인 15일에는 다양한 드론 퍼포먼스 행사도 진행된다.

축구대회 외에도 드론 드라이브 서킷체험, 3대 3 배틀드론, 드론코딩 및 드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홍보관이 운영된다. 국립과학관 주최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과 연계한 드론 아카데미 행사도 열린다. /천홍희 기자 strong@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거문도+백도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